역대급 태풍 강타… 사찰門도 넘어졌다

부산 · 경남권 사찰, 강풍 · 폭우에 피해 속출

하성미 기자 · 이도경 · 성낙두 지사장

문화재인 전각의 벽화가 폭우로 유실됐으며, 대웅전 문과 기와가 날아가고 경내 나무들이 쓰러졌다. 9월 3일 새벽,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태풍 마이삭의 직접 영향권에 들었던 부산 · 경남 일대 사찰들도 재해를 비켜가지 못했다.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문)는 극락보전 반야용선도 벽화 하단이 유실되는 등 사찰 곳곳이 강풍과 폭우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194호인 극락보전 뒷벽에 그려져 있는 '반야용선도'는 용머리와 꼬리를 갖춘 배에 일로 왕보살과 지장보살이 중생을 극락세계로 데려가는 모습을 표현한 수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통도사 경내 연화대 옆 소나무들이 쓰러지고 일주문 옆 월영교가 물에 잠겼다. 시탑전 뒤 소나무가 넘어져 차고지와 차량이 파손됐으며. 승가대학 강사 요사채 마당이 폭우에 범람해 물막이를 해둔 상황이다.

통도사 관계자는 "비가 포벽 상부까지 들이쳐서 벽화가 계속적으로 박락된 듯하다"며 "벽화 훼손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기록화 사업과 더불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벽화조사 및 보존처리를 계획했다. 문화재청에 관련 예산 승인 여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 태풍으로 인해 유실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경선)는 경내 큰 고목이 강풍에 쓰러져 전선이 파손되고 기와장이 떨어졌다. 자칫하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다. 또한 창고 건물 지붕이 날아가 복구 중에 있으며, 범어사 진입 도로에 나무들이 쓰러져 일시적으로 통행이 금지됐다.

통도사 극락전 반야용선도 유실
경내 나무들 강풍에 쓰러지기도
밀양 표충사 사찰문 무너져 파손
사찰 전각 지붕 · 문 파손 잇달아
도량 긴급복구 손길 절실한 상황



밀양 표충사의 공양간과 마당을 잇는 출입문이 9월 3일 태풍 마이삭으로 넘어졌다. 사진제공=표충사

범어사는 "현재 크고 작은 피해들이 있어 복구 중에 있다. 말사들의 피해 상황을 알아보고 있으며, 긴급 복구에 힘을 보태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명대사 호국도량 밀양 표충사(주지 진각)도 피해가 심각하다. 표충사에 따르면 9월 3일 새벽 강풍으로 공양간과 석탑 마당을 통과하는 문이 무너졌다. 또한 범종루, 대광전, 우화루 등 전각의 기와가 강풍에 날아가 파손돼 비가 새고 있는 상황이다. 표충사 종무소는 천장이 무너지는 피해를 입어 종무행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표충사 관계자는 "도량 가운데서 불자들을 맞이하던 아름드리나무가 강풍에 쓰러지고 차고가 무너져 차량이 파손됐다"면서 "곧이어 태풍이 올라온다는 데 긴급한 복구가 시급하다"고 토로했다.

부산 기장 천년고찰 안적사(주지 원여)는 기와장이 바람에 날아가 떨어졌고 대웅전 앞문이 강풍에 파손됐다. 주지 원여 스님이 대웅전 앞문을 닫으려는 순간 강풍이 불어 한쪽 문이 떨어져 나가는 피해를 입기도 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안적사는 지난 7월 23일 부산에 쏟아진 폭우로 다리가 무너지고 공양간이 침수 돼 긴급 복구 중이었으나 또 다시 불어 닥친 태풍에 피해를 입어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상황이다.

주지 원여 스님은 "나무가 넘어지고 산사태 까지 발생했던 상황에 또 다시 태풍이 불어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며 "지난 폭우 때 정부 재난지원에서 종교단체는 제외됐다. 스스로 모든 피해를 복구해야 하는 상황이라 어려움이 크다"고 설명했다.

천년고찰 마하사(주지 정산)는 마이삭 태풍의 영향으로 인해 나무가 쓰러졌고 일주문 옆에 위치한 난간 축대가 부서졌다. 기와장도 파손돼 복구가 시급하다.

주지 정산 스님은 "재난 피해 신고를 신속히 했고 부러진 나무와 대나무 등 도량정비를 하고 있는 중"이라며 "또 다시 태풍 예고가 있어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울주 법왕사(주지 혜경)는 강풍을 인해 차고가 소실되고 해우소 지붕이 뜯기는 피해를 입었다. 또한 산신각 문이 떨어져 나가고 도량 곳곳에 나무들이 부러졌다. 주지 혜경 스님은 "현재 울주군에 피해 상황을 보고하고 신속한 도량 정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울주 백련암(주지 천도)은 강풍으로 인해 선방채 기와가 떨어지며 태양열 유리판이 파손됐다. 현재 백련암은 폭우로 인해 더러워진 집기류를 정리하고 도량을 정비하며 긴급복구를 서두르고 있다.

부산 사하구 대부암 (주지 선혜)은 사찰 주변에 있는 나무가 쓰러져 긴급 복구에 나섰다. 주지 선혜 스님은 "현재 일손이 부족하지만 긴급복구에 나서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태고종 前 종정 혜초 대종사의 영결 · 다비식이 8월 30일 선암사서 엄수됐다.

"태고의 바람따라 어서 돌아오십시오"

태고종 前 종정 혜초대종사 영결 · 다비식 엄수

태고종 제17 · 18 · 19세 종정을 역임하며 종단의 기틀을 다진 혜초 대종사의 영결식과 다비식이 8월 30일 순천 선암사에서 엄수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거리두기가 격상된 가운데 봉행된 이날 영결식에는 사전 발열검사와 거리두기 등이 지켜진 가운데 진행됐다.

행사는 태고종 종정 지허 스님을 비롯해 총무원장 호명 · 원로의장 도광 · 중앙종회의장 법담 스님 등 태고종 중앙종무기관 주요 소임자와 각 지역 종무원장들이 참여한 가운데 봉행됐다.

이날 영결식에서 호명 스님은 영결사를 통해 "이제 무고안온(無苦安穩)한 극락정토에 계시더라도 종단이 향상일로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항상 살펴 주시옵고, 불법이 언제나 왕성하도록 가호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추모했다.

이어 원로의장 도광 스님은 "스님께서 주석하셨기에 선암사가 위엄이 있었고, 스님의 계심으로 종조의 종지종풍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지금 선암사 도량엔 종도의 슬픔과 그리움이 가득하오니, 부디 태고의 바람결 따라 어서 돌아오십시오"라고 추도사를 했다.

조사에 이어 종도들의 헌향과 분향이 이어졌고, 문도 대표들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국에 참여해 주신 대덕 스님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건넸다.

영결식에 이어 위패와 영정, 만장을 앞세운 법구는 평소 스님이 산책하고 수행하던 선암사 도량을 들른 후 경내에 마련된 다비장으로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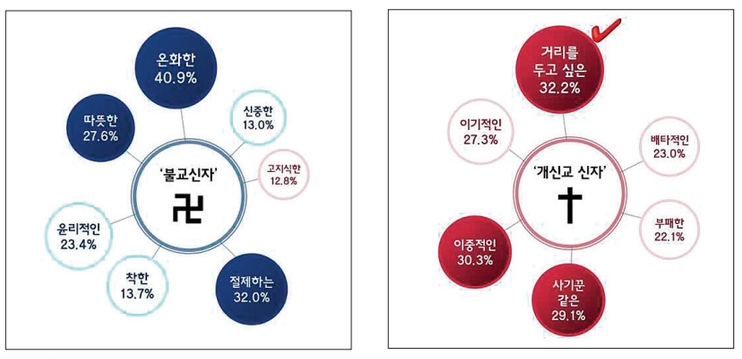
다비장에 도착한 법구는 20여 스님들의 거화와 300여 대중들의 "스님 불 들어갑니다" 합송과 함께 다비돼 세속의 인연을 다하고 법열에 들었다. 다비를 마치고 진행된 습골을 통해 스님의 사리 71과가 수습된 것으로 알려졌다.

순천 선암사=양행선 광주지사장

코로나 後 "불교, 온화 · 따뜻" 긍정 인식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조사서
불교 · 가톨릭엔 긍정 응답 높아
개신교 "사기꾼 · 이중적" 평가

"종교 역할 잘한다" 응답 6%뿐
바라는 종교인相 '성숙한 인격'



〈그림〉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조사한 종교인에 대한 이미지(중복응답) 출처=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리포트

코로나19 사태 이후 각각 종교를 바라보는 국민 인식이 불교와 가톨릭에게는 긍정적으로, 개신교에는 부정적으로 돌아섰다는 통계 조사 결과가 나왔다.

목회데이터연구소는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최근 발표한 '한국인의 종교에 대한 인식 조사결과'를 분석한 결과를 8월 29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불교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이미지는 온화한(40.9%) · 절제하는(32%) · 따뜻한(27.6%) 등의 긍정적 이미지가 많았으며, 가톨릭 역시 온화한(34.1%) · 따뜻한(29.7%) 등의 긍정의 답변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개신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싸늘하기만 했다. 국민들은 개신교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고 싶다(32.2%)"거나 "이중적(30.3%)"이라고 평가했다. 심지어는 "사기꾼 같다"는 응답도 29.1%가 나왔다.

해당 조사가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28~50명 수준으로 발생했던 지난 6월 23~26일 이뤄졌던 것을 감안하면 현재 개신교 대국민이미지는 더 추락했을 것으로 보인다.

불교 · 가톨릭에 대한 대국민이미지는 긍정적이지만, 종교 전반에 대해 국민들의 인식은 매우 부정적이었다.

'한국의 종교단체가 제 역할을 잘하고 있다'는 질문에 단 6%만의 국민들이 긍정의 반응을 보였다. 또한 국민 중 72%는 "코로나 사태라는 중차대한 시국에 솔직히 종교가 한 역할은 없는 느낌"이라는 의견에 동의를 표했다. 향후 종교 전망에 대해서도 참여자 중 55%가 "코로나19 사태로 한국 종교 위상이 낮아질 것"이라는 의견에 동의했다.

한국 종교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응답자(복수응답)의 65%가 종교계의 부정부패를 가장 큰 문제점임을 지적했으며, △종교계의 집단이기주의 △종교인들의 바람직하지 못한 생활 △정치 개입 △종교인 범죄 증가 △이웃종교에 대한 배타성 △인물 부재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인이 원하는 종교인 이미지에 대해서는 성숙한 인격(77% · 중복응답)과 높은 도덕성(68% · 중복응답)을 꼽았다.

이번 조사에 대해 박수호 중앙승가대 교수는 "개신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증가는 최근 일부 개신교계의 행보를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코로나 사태서 종교가 한 일이 없다'와 같은 종교계 전반에 대한 대국민 신뢰 저하에 대해서는 "이미 3~4년 전부터 탈종교화가 거론되며 종교의 대사회적 역할이 축소되는 경향이 강했는데 최근 일부 개신교계의 행보가 이를 가속화시킨 측면이 있다"면서 "또한 코로나19로 팬데믹이 왔고, 국민들은 불안에 떨었다. 이런 상황에서 종교계 전반이 이를 해소하는 역할을 찾지 못했고, 자신들의 역할을 부각시키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신성민 기자

"불교가 남북 평화의 길 열어달라"

이인영 장관, 8월 31일
원행 스님 예방서 밝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불교가 남북 평화의 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조계종의 금강산 신계사 템플스테이 사업 추진과 관련, "정부간 관계 개선 이전이라도 불교계와 북측 조선불교도연맹간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진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남북간 경색국면이 고착화되면서 정부간 관계 개선이 쉽지 않은 가운데, 종교계 등 민간교류를 중심으로 한 해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8월 31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예방을 받고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정부가 더 적극적인 노력을 개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원행 스님은 "지난해 금강산에서 남북 불교대표단이 만나 새해맞이 행사를 했다. 당시 강수린 조선불교도연맹 위원장과 신계사를 참배하면서 복원 이후 상황을 점검하고 신계사 템플스테이를 추진키로 논의했다"며 "이후 남북관계가 다시 경색되면서 중단돼 안타까움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님은 "신계사 템플스테이는 특히 전통문화를 활용해 한반도 평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불사"라며 "남북 협력으로 복원된 신계사에서 의미있는 불사가 다시 진행될 수 있도록 통일부가 꾸준히 관심을 갖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불교계가 세운 원력은 통일의 길과 다르지 않다. 무엇보다 종교계가 먼저 남북 화해의 길을 연다면 대단히 감사하고 뜻깊은 일"이라며 "남북 정부간 관계가 개선되기 이전이라도 불교계가 조불련과 논의를 통해 구체화할 수 있다면 통일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송지희 기자

"코로나 확산 방지위해 법회 중단"

조계종 · 종단협 지침… 대면행사 일체 중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불교계도 전국 모든 사찰에서 2주간 법회를 전면 중단하는 등 선제적 방역 강화에 나섰다.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은 "국민의 생명과 안정을 최우선시하고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고자 9월 3일부터 9월 16일까지 2주간 전국 사찰의 법회, 강의 등 모든 대면 집합행사를 중단하라는 지침을 시달했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지난 2월 20일 1차 긴급지침을 발표한 이래 9월 1일까지 10차례 전국 사찰에 긴급 지침을 시달하며 선제적 방역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원행, 이하 종단협)도 조계종과 같은 내용의 방역지침을 협회 회원 종단에 공고했다.

이에 따라 조계종을 비롯한 종단협 소속 종단 사찰들은 9월 3일부터 2주간 법회, 불교대학 강의, 템플스테이, 합창단 소모임 등 모든 대면 집합 행사를 전면 중단하게 된다.

사찰 상주대중에 대한 일상생활 지침도 내려졌다. 조계종과 종단협은 사찰 대중 스님들과 종무원들은 경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하고, 기도와 예불 집전 시에도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했다. 사찰마다 매주 '방역의 날'을 지정해 시설과 개인공간 및 물품을 소독하고, 개인위생을 강화할 것도 주문했다. 사찰 종무원에 대해서는 시차 출퇴근을 통해 다중밀접공간을 피하고, 고위험시설 출입을 금했다.

사찰 상주대중을 제외한 신도와 외부인의 대중공양과 공용음수대 사용은 중단됐다. 상주대중의 공양 시에도 개인 간격을 최대한 유지하며, 한쪽 방향으로 앉아 대화를 삼갈 것도 권고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